낙화

S#1 진료실 안

진료실 문밖에서 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.

지혜: 네?

의사: 어.. 일단 산모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태아가 기형일 확률 성이 아주 높아요.

아무 말이 없어진 지혜.

의사: 외람된 말씀이지만 임신 중절 수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 태아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.

S#2 집 안

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.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숨을 쉰다.
거실로 들어가는 도중 재민이 비번을 누르며 집에 들어온다.

재민: 어 자기야. 벌써 갔다 왔어? 미안해.. 회사가 바빠서 같이 못 가줬네..

지혜를 안아주는 재민.

재민: (안아주면서) 병원은? 잘 다녀왔어??

갑자기 재민을 안으면서 울음이 터진다.

소파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지혜. 재민은 물을 가져온다.

물을 건네주는 재민.

재민: 자기야 무슨 일이야?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..

지혜: 자기야 우리 아이가,,,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대, 근데.... 난 도저히 낳을 자신이 없어.

한참 고민을 하는 재민.

재민: 지혜야. 기형아여도 우리 아이잖아. 근데 우리 아이를 지우는건 좀..

고개를 숙이는 지혜.

지혜: 낳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대..

재민: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혜야..

지혜 어깨를 잡는 재민.

고개를 확 들며 재민 말을 자르는 지혜.

지혜: 아니 못 낳아. 솔직히 낳아서 잘 키울 자신도 없고..

머리를 넘기는 재민.

재민: 너는 어떻게 그리 쉽게 포기해?

지혜: 뭐? 쉽게 포기해?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겠어?

재민: 아니.. 그런 말이 아니라.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지...

지혜: 하 생각은 무슨 생각? ... 너는 내 생각은 하긴 하니?

크게 한숨을 쉬는 재민.

재민: 미안해 자기야 내가 말실수했네... 그래도 우리 아이고 아무리 기형아여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? 그리고 낙태를 하면 임산부 몸에도 많이 안 좋고..

지혜: 너는 내가 이런 위험한 수술까지 하면서 애를 지우려는 이유를 모르겠어?

재민: 알지.. 왜 몰라

지혜: 됐어.. 더 할 말 없어. 내 몸이고 내가 결정해. 나도 충분히 생각 많이 하고 내리는 결정이야.

재민: 아.... 지혜야.. 제발

밖으로 나가는 지혜.

소파에 주저앉는 재민.

S#3 병원 안 안내 데스크

앉아서 순번을 기다리는 지혜.

무언가 결정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건다.

지혜: 자기야. 나 병원 왔어.

재민: 병원은 왜?

지혜: 나 지울 거야.

재민: 자기야 잠깐만.. 일단 내가 갈게. 기다려..

때마침 간호사가 부른다.

간호사: 김지혜님 진료실로 모실게요.

뜸 들이는 지혜.

전화를 보고 끊는다.

End.